지역 메아리

정읍시보건소, 하절기 방역소독 박차

정읍시보건소가 내달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방역에 앞서 각 읍면에 방역소독 약품을 배부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장비에 대한 일제 검검도 마쳤다. 또 방역 소독요원 대상으로 교육을 갖고 소독 작동법과 방제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보건소는 낮에는 하수구와 정화조, 공동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천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투약과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밤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을 실시한다. 관련해 읍면은 자체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동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포함한 5개반이 지역 당 주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교육'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한 정책이다. 관공서로 '찾아오는' 시민들의 민원 관련 신청과 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고, 찾아가는 복지대상 발굴과 심층 상담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박차

고창군이 올해 64억3200만원을 투입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완공되는 사업인 구수지구를 비롯해 계속사업인 건동지구, 금평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추진한다.

금평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설계검토와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이달 중 공사발주 할 계획이다. 군 재난안전과 성홍택 과장은 "현재 총사업비 232억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서도 구수지구는 현재 금년 9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쓰레기매립장이 주민 쉼터로

부안군 환경센터 직원들, 사계절 꽃향기 넘치는 꽃 심기 운동 추진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사계절 꽃향기 넘치는 주민 쉼터로 변모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군 환경센터 김덕진 팀장을 비롯하여 36명의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처리장 협오시설이 아닌 사계절 꽃향기 넘치는 꽃 심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센터 입구부터 철쭉, 붉노랑상사화, 샤스타데이지꽃, 달맞이꽃, 꽃 양귀비, 꽃 무릇, 소 국화, 백일홍, 해바라기 등을 식재 겨울철을 제외하고 방문객들이 항상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있도록 하여 꽃구경 인파가 몰려오고 있다.

직원들은 환경센터 주변정비는 물론 사무실과 휴게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직원들과 환경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조성,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도 줄을 잇고 있다. 여기 에다 주변마을인 후촌 1,2구 마을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마을 안길과 후촌정보화센터 주변에도 각종 꽃을 심어 쓰레기 처리장과 주변마을의 창조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근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부안군 환경센터는 1일 생활쓰레기를 약 45톤 수거 처리하는 곳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환경·사회단체, 초·중·고학생, 마을부녀회, 읍·면 이장단을 초청하여 쓰레기처리 전 과정을 견학케 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덕진팀장은 "환경센터를 방문하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완벽한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여 줌으로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변마을과 소통, 공감, 협력하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환경센터 김덕진 팀장을 비롯하여 36명의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계절 꽃향기 넘치는 꽃 심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창군, '엄마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큰 호응

이해와 소통의 시간 가져

고창군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가죽공예'를 운영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총 3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와 엄마가 함께 통가죽으로 된 미니 크로스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됐다.

체험 첫 시간은 청소년들이 엄마와 함께 각자 원하는 도안으로 무늬를 찍어낸 후 염색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염색을 마무리하고 바느질과 마감재로 깔끔하고 예쁘게 가방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체험에 참여한 김미주(고창초 6)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을 엄마와 함께 만들어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박생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맞벌이 등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부모들을 위해 앞으로도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2018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가죽공예'를 운영했다.

고창군,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종이팩 모으면 화장지 교환

고창군이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 배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해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우유, 두유, 주스 등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펼쳐서 건조시킨 후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가져가면(200㎖짜리 20장, 500㎖짜리 10장, 1000㎖짜리 5장) 고급화장지 각각 2롤로 교환해 준다.

군 환경시설사업소 김종훈 소장은 "종이팩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은 편으로, 자원 낭비가 심한 편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광 정읍시장 후보, 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운동 돌입

무소속 강광 정읍시장 후보가 최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오전 10시 정읍시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마친 강광 후보는 "지방 적폐를 걷어내고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정읍'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정당을 보고 시장을 뽑았지만 정당후보들은 정당을 위해 일 할 뿐 시민들에 대한 진정성은 부족했다"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4기 시장을 역임한 경험과 함께 33년의 공직 생활과 25년 동안 정읍을 지킨 경륜을 바탕으로 정읍이 일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또 ▲기업 유치…일자리 1만개 확보로 경제활성화 ▲1,000만…사계절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 ▲역세권 개발…새만금 배후도시로 손색이 없는 서남권 중심도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바우처교육 확대로 인재 육성 최선 ▲효도 수당 신설…경로 복지 확대의 5대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후보 "선외기 엔진교체비 지원"

무소속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는 25일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낡은 어선 수리비와 선외기 엔진 교체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규 후보는 가력항을 찾아 어민들의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자리에서 "낡은 어선의 수리비와 선외기 엔진교체에 걱정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어선수리 업체, 어촌계 등과 상호 약정을 체결해 어업용 선박의 디젤·선외기 엔진 무상점검·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이동 수리소를 확대하고 선외기 엔진교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어선 전문 조선소 설치는 선박을 건조하는 재질이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FRP)으로 돼 있어 선박을 수리 및 건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이 날릴 수 있다"며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FRP 분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역겨운 냄새까지 유발해 방진마스크 착용 없이는 숨조차 쉴 수가 없어 주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 농작물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각종 부작용이 많은 어선 전문 조선소 설치보다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의 선박 유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어선 엔진 수리비 및 선 외기 엔진교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안=이옥수 기자